

2000-3-18

봉급에서 0.1%를 연금기금으로!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를 위한 기부문화를 증진하는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이 밀바람이 되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금의 95%는 매월 5달러(1만 원)를 내는 사람들이고, 미국의 공동보급기관인 유니타드 웨이에서 직장인들이 기부하는 연금 기부금은 30억 달러(3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소액기부자의 기부금 대안이 경우 봉급공제(PAYROLL DEDUCTION) 방식으로 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약정하는 금액이 선택한 기관과 회사에 자동이체된다. 이러한 기부방식은 직장상사의 주선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

미국 내각부 대각관이 복지대학장(메릴랜드 대학)은 본인으로부터 주어진 금액에 봉급의 1%를 복지기금으로 내도록 권유하는 것을 본인이 있다.

우리 사회에도 소액다수기부운동이 전개되기를 위해 봉급의 0.1%를 1천분의 1의 봉급을 이것을 위해 쓰자는 제안을 한다.